

2019 BGS Global Leadership Summit 참가 보고서

20140906 경영학부 이용운

1. 프로그램 소개

Beta Gamma Sigma(이하 BGS)는 전 세계 AACSB인증 경영대학 상위 10%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Honor Group으로, 72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한 Global Leadership Summit(이하 GLS)은 BGS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리더십 컨퍼런스로, 매년 11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해당 컨퍼런스의 스폰서로는 KPMG, GEICO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과 다양한 우수 경영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번 2019년 GLS는 일리노이주 샴버그에 위치한 르네상스 컨벤션 센터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저는 서강대학교 지부 18기 회장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 준비과정

먼저 행사 참석자가 결정이 되어 김이권 교수님께서 BGS 홈페이지에 참가자 등록을 해주시고 나면,(이번에는 재정적 이유로 한 명만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BGS 측에서 행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또한 추후에 숙박비 및 식사비 명목의 등록비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도 이메일로 공지를 해줍니다. 서강대는 이제껏 우수 지부로 선발되어 1인에 한해 등록 비용이 면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역시 등록 비용을 면제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면제 여부가 늦게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께서 먼저 문의 메일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메일을 통해 스케줄 및 유의사항 등이 자주 통지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자주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사 참석이 확정되고 나면 BGS 측에서 보내 준 (혹은 BGS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날짜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항으로 표를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제 경우는 돌아오는 직항-항공편이 많지 않아 갈 때는 직항으로, 올 때는 경유로 구매하였습니다.) 항공권 구매는 꼭 경영학부 행정실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과 상의하신 후 구매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본인이 항공편을 알아보고 난 후 행정실에 말씀을 드리면 행정실에서 결제를 도와주십니다.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꼭 행정실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행사참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석에 한해서는 일괄적으로 유고 결석 처리가 되며, 이를 위해 보딩패스와 행사장에서 받은 참가자 네임태그 등을 증빙자료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항공권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며, 따라서 유심

구매 및 여행자 보험 가입 등은 본인이 직접 비용을 치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니 출국 전에 가입을 완료하시고 관련 증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BGS에서 발송해주는 메일들 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와 있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메일만 잘 확인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참석 준비 과정에서 행정실 및 교수님과 자주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첫째 날

저는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 행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 시카고에 미리 도착하였고, 다운타운에서 하루를 머문 후 대중교통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및 등록 시작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었고, 이에 맞추어 호텔에 도착한 후 체크인과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현장에는 BGS관련 물건들을 판매하는 BGS Store를 비롯하여, KPMG와 GEICO, ETS 등 다양한 스폰서들의 홍보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무료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룸메이트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자면, 저는 중국계 미국인(Chinese-American)인 Michael Chan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아마 BGS 측에서 학생들의 국적과 인종을 고려하여 방 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서로를 대했지만 서로의 문화, 사회 이슈, 역사 등에 관한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다 보니 어느덧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주 잘 맞는 친구를 만난 덕분에 행사 내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저녁부터 호텔에서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매번 식사시간마다 열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둥근 테이블(예식장 테이블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에서 저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GLS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절반 정도가 미국인이거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네트워킹 및 소셜라이징에 굉장히 익숙해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식의 서양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에는 BGS의 CEO인 Christina Carosella가 BGS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 첫날부터 세션이 예정되어 있어 바로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미래 직장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둘러싸고 5명의 강연자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미래에는 기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같이 현재에는 수량화할 수 없는 자산들을 측정하는 것이 주된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션이 끝나자 수많은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고, 질문하기를 꺼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모두 끝나고는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4. 둘째 날

먼저 오전에는 CliftonStrength라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강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의 설문조사 결과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우리 사회는 약점을 보완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강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연자 분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성과가 훨씬 뛰어나고 업무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제껏 잘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더들은 자신들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적시에 적절히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리더의 새로운 정의도 배우게 되었는데, 세상에 다양한 모습의 리더십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쩌면 리더마다 가진 강점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과 서로의 강점을 자신만의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컨설턴트인 Bob Merberg 강연자께서 Inclusive Leadership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Inclusive Leadership이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리더십입니다. 강연자 분에 따르면 세상이 바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해야 하는데, 다양성이 현세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Inclusive Leadership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지향점을 섞어 놓았다는 점에서 Glocalization 전략이 떠오르기도 했고, 의외로 간단명료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의 두 세션이 끝나고는 점심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셋째 날 있을 Case Competition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조원들끼리 모여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가졌습니다. 할당된 시간이 길지 않아 간단한 자기소개만 하는 정도로 끝났으나, 어느 한 명 모난 친구 없이 모두 쾌활하고 적극적이어서 다행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구직가능성을 높여주는 레쥬메 및 CV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실 강의 자체가 미국 내에서의 채용 프로세스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적 맥락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추후 해외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도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허투루 듣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미국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올바른 서류 작성법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션이 전부 끝나고는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후 같이 식사를 했던 친구들과 호텔 로비 스타벅스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셋째 날

첫번째 세션은 사회적 혹은 감정적인 요소가 개인 그리고 경영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강의의 강연자인 Mawi Asgedom은 수단 출신의 난민으로,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민자 출신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출신과 배경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였고, 매일 불평을 늘어놓으며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Turbo 버튼을 누름으로써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Turbo 버튼이란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에너지로, 그는 자신의 Origin을 약점으로 취급하는 small-minded person이 자신을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위해 항상 Turbo 버튼을 킨 채로 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즉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Lessons in Leadership'이라는 책의 저자인 Ana Dutra 강연자께서 좋은 리더의 속성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리더들은 항상 자기 성찰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답을 구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졸업이 가까워지며 자꾸만 귀가 얇아져 갔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좋은 Speaker보다 좋은 Listener가 되는 것이 리더로서 더욱 바람직하다고도 말씀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어떤 대상, 사람, 상황으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강연자께서는 심지어 바퀴벌레로부터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적응력을 배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변화와 적응은 요새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들이라 그런지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직장을 갖게 될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10가지를 소개하며 강의가 마무리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그러나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라는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동안 큰 꿈과 목표에만 압도되어 제가 성취해낸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Kellogg 대학의 교수이신 Dr. Bernard 강연자께서 미래에도 필요한 리더로서의 기본 소양들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화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Interpersonal Skills를 무엇보다도 강조하셨습니다. 제아무리 리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동기부여시키지 못하면 백퍼센트의 효율을 끌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우는 능력, Learning Agility를 강조하셨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떤 것을 배워야할지 알 수 없고, 또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빠른 습득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이제껏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주저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서는 Excellence란 한 순간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습관이 쌓이게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근육을 키우려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꾸준

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근래에 굉장히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전 세션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점심을 먹고 각자 신청한 Break out Session에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Marcum LLP의 Advisory Services Partner이신 Scott Stringer의 회계 커리어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나 강의의 주된 초점이 미국 내에서의 취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저는 USCPA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아 강의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미래에는 회계사도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 줄 알아야 될 것이라고 (혹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 다.

마지막 세션 때는 Blended Collective의 CEO인 Lydia Michael 강연자께서 직장 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연자 분의 설명에 따르면 높은 다양성은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조직에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기회를 증가시키고 혁신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성이란 개인이 가진 여러 측면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진 차이점을 반영하여 대우해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꽤나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인종이나 나이, 성별과 같은 눈에 보이는 다양성 외에도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Invisible Diversity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웠습니 다.

세션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는 대망의 Case Competition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날 등록 시에 받았던 네임 태그의 색깔에 따라 케이스의 종류가 결정되고, 같은 케이스를 맡은 다른 팀들과 경쟁을 하는 구조였는데, 저는 Purple Case의 Team 5였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한국인 1명, 베트남인 1명, 홍콩인 1명, 인도인 1명, 두바이인 1명, 콩고인 1명, 미국인 4명 이렇게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케이스의 내용은 Flying Parts라는 회사가 Family-based small enterprise에서 High-tech Company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겪는 Organizational Issues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케이스는 KPMG에서 제공하였으며, 3시간 30분 안에 PPT를 만들어 제출해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었고, 영어로 제 생각을 완벽히 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10명의 학생들이 서로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저였지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공동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었고, 이는 매우 값진 기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컴피티션 제출을 끝낸 이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제 룸메이트인 마이클과 시드니 대학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유시간이 하루 뿐이라 무척 아쉬웠지만 친구들과 맛있는 시카고 핫도그도 먹고 관람차도 타는 등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6.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는 8시에 미리 체크인아웃을 하였고, 각 팀마다 배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전날 미리 제출했던 PPT 자료를 이용해 세 명의 Judge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우승 팀 선정이 진행되었고, 각 케이스마다 우승 팀은 전체 학생들 앞에서 다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팀은 우승 팀으로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기에 나름대로 만족하였습니다. 발표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같은 팀원 친구들, 그리고 행사를 통해 친해졌던 친구들과 페이스북 및 링크드인 아이디를 서로 공유한 후 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는 BGS 측에서 대절을 해주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7. 느낀 점

돌이켜보니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워낙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다보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모든 일정이 끝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익한 강연들부터, 다양한 관점을 가진 팀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Case Competition,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식사 자리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명예로운 자리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대표하는 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김이권 교수님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경영학부 행정팀 구해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소소한 팁

Windy City라고도 알려진 시카고는 그 명색에 걸맞게 정말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터운 옷을 많이 챙기지 않았고, 또 구글맵을 보며 이동하거나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때 손이 시려 힘들었는데, 다음에 가게 되실 참가자분께서는 따뜻한 옷을 여러벌 챙기시고 꼭 장갑을 챙기셔서 그러한 어려움을 안 겪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평소 양식을 즐겨 먹는 편인데도 매 끼니를 양식으로 먹으려니 속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컵라면 정도는 챙겨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ber나 Lyft와 관련된 프로모션을 미리 한국에서 알아보시고 가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호텔에서 진행되는 일정이라 택시를 탈 일이 거의 없지만, 저의 경우에는 처음 호텔로 이동하는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아 우버를 이용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사진들



[사진1, 등록 부스]



[사진2, 숙소 내부]



[사진3, Case Competition 팀원들과 함께]



[사진4,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해졌던 대만, 중국, 홍콩 친구들과 함께]